

“자격루 연구회” 창립대회(1990. 8. 20)

南 文 鉉

건국대

“오늘날 우리는 일찌기 겪어 보지 못했던 經濟成長과 技術革新, 國際化와 開放을 통해 世界史의 흐름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새로운 跳躍을 위한 可能性이 充滿한 시대에 살고 있다. 混沌과 거센 물결을 克服하고 새로운 可能性을 實現하여 풍요로운 社會를 建設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民族的 自我의 確立과 새로운 科學文化의 暢達에 있다. 民族文化의 創造의 發展을 科學精神의 觀點에서 把握하고 오늘을 있게 한 祖上의 科學技術 遺産을 學問的으로 그리고 文化的으로 整理하고 研究하여 世界文化와의 고리를 찾아내고 올바른 體系를 세울 責任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녀왔던 傳統 科學技術에 대한 지나친 過小評價나 부질없는 자랑을 듣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正當히 評價하여 人類文化의 發展에 貢獻해야 할 때이다.”

위에 인용한 귀절은 지난 8월 20일에 출범한 “자격루 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의 서두이다. 올해 8월 20일은 음력으로 치면 7월 초하룻날인 데 「世宗實錄」卷第 六十五 甲寅條(1434년 세종 16년 7월)에 전하는 새로운 물시계(新漏)인 자격루(自擊漏)가 처음으로 표준시보를 울리기 시작한 날이다. 그동안 역법이 여러번 바뀌어서 당시의 7월 1일이 8월 20일은 아니나 마침 더위도 가시고 대학이 개학을 시작하는 때라 학술행사를 하기에 적합하다 생각되어 이날을 기하여 “자격루 연구회”를 창립하기로 5월 19일에 열렸던 발기인대회에서 정하였었다. 이 연구회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측정기기와 정밀기술을 연구하고 전통기술의 보존선양과 과학문화의 창달, 그리고 시계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터이라 산업기술사학회 등 여러가지 명칭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시간측정과 관련된 전통과학기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격루라는 명칭을 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회 내의 연구회로 발족하는 것보다 독립적인 작은 규모의 학회를 지향할 것을 목표로 “학회”라는 명칭보다 “연구회”라 부르기로 하고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riking Clepsydra(Chagyeongnu)”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과학사학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과학문화재 조사를 비롯하여 「增補文獻 備考」의 역주사업, 민족문화유산 발굴 지원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복원 연구사업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자격루와 혼천시계가 국보로 지정되고 조상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전개됨에 따라 과학사, 기술사, 역사, 공학, 교육, 산업분야의 공동연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비등하여 全相運교수를 비롯하여 학계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공동연구사업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단체에서의 과학문화재 복원사업 등을 학술

적으로 지원하고 민족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양부일구(仰釜日晷)’가 惠政橋에 설치된지 555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11월 11일에 ‘시계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는데 자극되어 각 분야의 인사들에게 연구회 발기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외의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도 모색하였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된 회칙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9일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全相運교수의 발족경위 보고가 있었고 俞景老교수의 제창으로 全相運교수를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羅逸星교수와 필자가 실무를 맡기로 하였다.

8월 20일 덕수궁 소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발전연구소에서 창립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필자는 8월 2일부터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리는 ‘제6회 국제중국과학사회의’에 참석하여 「자격루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과학박물관을 순회하면서 고대시계의 복원 현황을 살펴 보았다. 때마침 문화부와 과학기술처에서는 8월의 문화인물로 蔣英實先生을 정하고 ‘시계특별기획전’ 등 ‘장영실의 달’ 기념행사를 하는 가운데 “자격루연구회”의 발족에 대해서도 신문, 방송에서 널리 알려 자격루를 위시하여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8월 20일 오후 4시 15분 역사적인 개회선언에 이어 창립준비위원장인 全相運교수의 인사말이 있었고 필자는 발족경위를 보고 하였다. 곧이어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전문 12조 부칙 3조로 된 회칙의 승인이 있었고 이 회칙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다. 먼저 감사에는 「월간시계」의 발행인 金榮浩, 충북대 鄭長海교수를 선출하고 초대회장에는 준비위원장인 全相運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회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그간 한국과학사, 기술사의 길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최근 들어 자격루를 비롯한 조상들의 과학유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을 볼 때 한국과학기술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學際의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연구회의 창립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연구의 활발한 전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姜洪烈박사의 축사에 이어 사업계획안의 토의가 있었다. 이 연구회는 일차적으로 일반학술단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발표회와 독회의 개최, 교육자료개발, 학보간행,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재 복원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사업범위에 넣기로 하였다. 여러가지 의욕적인 사업이 토의되었으나 5개년 계획으로 자격루와 혼천시계의 복원, 한국시계사 발간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시계박물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문화재 복원사업 참여,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한 학술활동의 전개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여 주신 姜洪烈박사는 이 연구회의 사업에 한국과학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셔서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이 연구회가 先代의 과학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오늘에 재조명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창립대회를 마쳤다.

곧이어 이 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손보기박사(한국선사문화연구소장, 단국대 초빙교수)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과학의 바탕’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슬기’를 바탕으로 이룩된 과학정신과 과학의 바탕을 이루었던 ‘경험’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 출범하는 자격루 연구회의 과제라는 내용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였다.

강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유서깊은 中宗自擊漏(1536년 中宗 31년 제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자리에는 世宗代의 名臣으로 天文儀器事業과 甲寅字의 제조에 큰 역할을 하였

던 李蕙 선생의 후예들과 蔣英實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하시어 더욱 자리를 뜻깊게 하였다. 새로 발족된 “자격루 연구회”에 대한 江湖諸賢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연구회의 발족과 자격루연구에 대한 현황을 보도해 주신 신문, 방송, 잡지 관계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구회의 창립회원과 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全相連 (성신여대, 과학사)	
부회장	羅逸星 (연세대, 천문학)	
총무간사	南文鉉 (건국대, 제어공학)	
학술간사	朴寧弼 (연세대, 기계공학)	
재무간사	朴薪錫 (한국표준연구소, 기술정보실장)	
감사	鄭長海 (충북대, 천문학)	金榮浩 (월간세계 발행인)
고문	俞景老 (서울대 명예교수)	손보기 (단국대 초빙교수)
	姜洪烈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회원	朴永錫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吳俊鎬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공학)
	金知泰 (서울과학교육원장)	鄭在鏞 (문화재관리국장)
	朴鼎憲 (건국대, 물리학)	南副熙 (강원대, 제어계측)
	朴種國 (세종대왕기념관장)	金虎起 (국립중앙과학관장)
	朴淳達 (서울대, 산업공학)	朴星來 (외국어대, 과학사)
	李效鎭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韓善英 (건국대, 컴퓨터과학)
	姜城模 (일리노이대, 전자공학)	金天暉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천문학)
	金顯稷 (삼미전산주식회사 대표이사)	李勇三 (충북대, 천문학)